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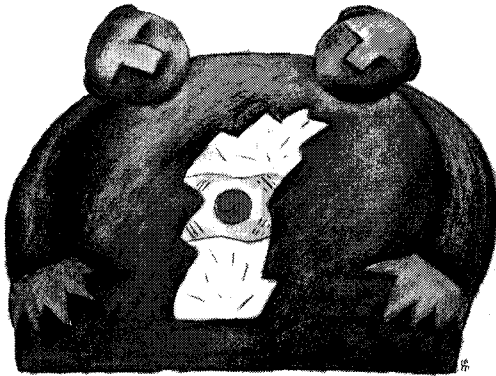
□ 통일 기획 (上) - 탈북자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깨뜨리자

그들에게 '코리안드림'은 허상인가

탈북자 32%, 경제생활 기대 못 미쳐... 국민적 공감대로 포용해야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탈북자들. 사회주의 사회에서 피동적인 삶을 살았던 그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통일 한국의 미래를 진단한다.

〈편집자〉



달 싣는 순서

(上) 탈북자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깨뜨리자
(下) 탈북자를 통해 본 통일 한국의 미래 진단

정성창 (정의와 감사)

탈북자들의 삶에 대한 접근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차단되어 왔다. 정부에서는 탈북자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연구자들에게조차도 탈북자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제한해 왔다.

이러한 종전의 상황에 변화가 생겼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 탈북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 사태는 탈북자들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정부는 탈북자들의 수용과 한국사회 적응문제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서둘러 대책 마련에 부심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민간연구자들에게 제한적이거나 탈북자들과의 접촉이 허용되었고, 그 결과 그들의 삶과 의식에 대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사실들이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에 발표된 민족통일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는 충격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탈북 이전의 삶과 현재의 삶을 비교해보는 질문에 대해 현재 남한에서의 삶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많이 나왔던 것이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북한에서와 비교하여 '매우 나아졌다' (41.5%)와 '다소 나아졌다' (14.6%)는 응답이 과반수였으나, '나빠졌다'는 응답 ('다소 나빠졌다' 14.6%, '매우 나빠졌다' 17.1%)도 31.7%로 적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적 대우에 대해서는 '매우 나빠졌다'는 응답이 31.7%, '다소 나빠졌다'는 응답이 17.0%로, '매우 나아졌다' (22.0%)와 '다소 나아졌다' (9.8%)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올 때 가졌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 수준으로 실망과 좌절을 겪고 있으며, 시장경제체제에 부

응하는 경쟁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들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경멸과 '가장 사랑하는 혈육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편견이 그들에게 제2의 상처로 각인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통 연구는 또한 탈북자의 45%가 막노동에 종사하거나 무직상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에의 적응과정은 약 50년간 이질화 되어왔던 남과 북의 사람들이 통일 후 하나의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날 문제점들과 그 해결책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일종의 '예비실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996년 5월 연세대 통일연구원 이 개회한 '탈북자 대책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전우택과 민성길의 연구논문은 대다수의 탈북자들이 남한 도착 후 정부기관의 보호를 받는 동안 남한사회의 적응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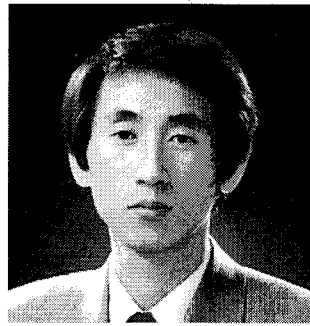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말로만 통일의지를 강조하였지 실제로 있어서는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 관심을 가져야할 과제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

통 논문은 또한 일단 사회생활을 시작한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적응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탈북자들을 돕게 될 사람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탈북자들을 대상으로한 체계적인 북한연구수행 등을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몇몇 전문가만 해도 탈북자 포용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당국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이 문제를 온 사회가 함께 떠안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제는 탈북자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기회가 생길만큼 그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우리도 그들에 대해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한국사회적응을 도우면서 머지않아 다가올 통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인터뷰 - 탈북자 박수현 (한의 본과 2)

왜곡된 한국 이미지 개선 필요



최근 몇년 사이 부쩍 탈북자가 많아지고 있다.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모두들 신기한 눈초리로 바라보다'며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하는 우리학교 한의학과에 재학중인 탈북자 박수현씨를 만나보았다.

현재 누구와 어디서 살고 있나

지금은 노원구 중계동에서 부인과 9개월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어떤 계기로 탈북을 결심했나

북한사람들은 중국이 정말 대단히 잘 사는 줄 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살 생각으로 떠난 것이다. 막상 중국에 갔더니 남한은 여기보다 훨씬 더 잘 산다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넘어오게 된 것이다. 중국에서 살다가 북한사람들에게 잡혀서 죽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나까 차라리 거기서 죽느니 한국에 한 번 와보고 죽어갔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중국사람들에게 들던 대로 천국 같았다. 먹을 음식도 많고 교통도 편리해 너무 신기했다. 예를 들어 거기는 자전거가 굉장히 귀하다. 그래서 누가 훔쳐갈까봐 꼭 안방에 들 여놓고 잔다.

북한에서의 한국에 대한 생각은

한국은 정말 못 사는 줄 알았다. 국민들이 데모만 해서 거리는 운동회 때만 가쁜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북한을 떠날 때 한국에 올 계획은 아니었다.

북한에서의 생활은 어떠했나

아버지께서 당에 철저히 충성했기 때문에 당성분이 비교적 좋았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 공전서 8년간 군복무를 했다.

한의학은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

북한 청진외대 고려의학부 4학년 재학 중에 탈북 했다. 군대에 있을

때 당 조직의 추천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성품 좋은 친척이 없어 제일 인기없는 한의예과에 입학했다.

우리학교 한의예과는 어떻게 입학하게 됐나

북한에서 한의예과(고려의학부)를 다녔던 것을 인정해줘서 들어오게 되었다. 말하자면 특별로 입학하게 된 것이다.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직도 북한사람들은 평화통일은 꿈에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북한사람들이 현재는 너무나 억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통일이 된다면 너무나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후 1세대는 지나야 평화롭고 발전적인 한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통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북한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없애야 할 것이다.

〈김수란 기자〉

□탈북자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자율이 오히려 압박감 부른다

탈북자들은 김일성 사망해인 94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남한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수는 2월 28일을 기준으로 6백 88명. 이중 30~40%는 무직상태라고 한다.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의 윤현 이사장은 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으로 "정신 질환, 정서불안, 영양실조로 인한 소화기계통의 질병 발생, 가정불화 그리고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정신질환. 윤 이사장은 "아들과 딸을 북한에 두고는 '전 북한 외교관 부부'의 눈에 초점이 없어 마치 중병에 시달리는 것 같다"며 "그래도 고위층이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북에서 오랫동안 강령이죽만 먹고 살아온 벌복공이나

농민들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어렵다. 장기간의 치료를 해야하는 병에 걸려도 병원에 찾아가는 것은 엄두도 못 낸다. 작년 여름 한국말을 할지 못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힘들어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탈북자도 있다.

탈북자의 사회적응 능력에 대해 윤 이사장은 "북한사람들은 그 동안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줬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미숙하다"며 "북에서 넘어올 당시 자신을 귀순용사로 착각하여 남한에서 그들을 환영해 줄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있어 실제로 현실과의 괴리감에서 오는 충격 또한 크다

고 한다.

게다가 정착지원에 있어서도 92년까지 '주공아파트 입주권'이 지급되었으나 지금은 '영주임대주택 입주권'과 '정착금 1천5백만원' 상에서 그치고 있다. 따라서 1천 5백만원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8백만원을 제외한 7백만원의 돈으로 낯선 사회에서의 삶을 시작해야만 한다. 정부에서는 물론 이들에게 직업을 구해주기 위해 직업훈련학교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윤현 이사장은 "사실이 불충분하며 적성을 고려하지 않아 학습의 능률과 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최현일 기자〉

구분	현 재 국 내 체류자	사 망 이 민 자	총 인 명	70 년 대	80 년 대	90	91	92	93	94	95	96	97	98 현재
인원	688	190	878	59	63	10	9	8	8	52	40	55	86	12

▲ 연도별 탈북자의 입국현황 (98년 2월 28일 현재)

작 품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한다. 또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고 일정기간 동안 국가를 책임진다. 만약 이러한 법적 근거가 맞다면 대통령에 대한 한문 표기는 大統領(대통령)이 되어야 맞다. 그런데 왜 우리는 大統領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일까?

작은 나라의 서러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 콤플렉스의 산물인가, 군주시대의 천부시상 때문인가.....

초대 이승만 정권은 다 잘못됐지만 가장 큰 건 하나는 3.15 부정 선거였고 그 수장은 그 건으로 결국 조국에서 쫓겨나 미국에서 가장 큰 섬인 하와이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고, 근 대화의 기차 박정호 전 대통령은 국민의 귀와 입을 유신헌법으로 막고자 했던 큰 건으로 결국 큰 벌(대장) 출신에게 총을 맞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광주민주화 운동의 살육 전임으로 큰 건 하더니 몇 천원인지 몇조인지 모를 만큼 큰 돈 챙겨들고 청와대 문을 나섰다

'98 KOREA 亂場(난장)

가 백파사 큰 절에서 큰 스님과 은둔생활하고 나서도 반성의 빛이 없었기에 다시 큰 집(의왕구치소)에서 갇혀, 그리고 연희동 큰 집에서 경찰 보호(?)를 받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큰 돈 챙겨들고 나왔다가 큰 절에서 몇 년 살더니 역시 연희동 큰 집으로 와 있고, 문민 대통령 역시 나라 큰 살림 다 맡아먹고 큰 I.M.F. 불러와 국민들에게 큰 고통과 눈물만 남겨둔 채 상도동 큰 집으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큰 건 단재종교 도망가면 그 설거지는 여지없이 국민의 뒤편으로 돌아오니,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란 여간 힘겨운게 아니다.

15대로 취임하신 분은 벌써 이름 가운데 큰 대자가 들어있을 뿐 아니라 이미 민주투사로 큰 집(감옥)에도 몇 차례 다녀 오시고 40여 년 만에 드디어 대권을 잡으셨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다 마지막에 큰 건 하나 잡았다 싶어서인지 존경의 발로인지 모르겠지만 줄서는 사람도 많고 손 내미는 사람도 많

아 보인다. 정당은 있되 이념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여당입네 야당입네 박박 옥겨대는 정치판을 보고 듣자니 심장이 쿵쿵 내려앉고 위산이 과다분비되고 오장육부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하는 듯하다. 또다시 이 땅의 정치판을 국민을 기만하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틀어막은 채 엉뚱한 장단으로 亂場(난장)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해서 말이다.

화장한 봄날 소망 하나를 꿈꾸어 본다. 제발 큰 건 하나로 이름 석자 남기는 대통령말고 해외순방을 위해 비행기에서 손 흔드는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大統領이 있는 나라, 국민을 대신하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 경제논리에 의한 경제정책, 국민이 세금내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봉사행정, 국가운영이 대통령이나 장관이 없어도 구석구석이 잘 갖춰져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좀 제대로 된 나라에서 한 번 살아볼 수 없나. 제발 [지누]

석 · 박사 학위 논문 공개발표

학과	이름	논문제목	일시	장소
진 단 이	이희철	Experimental Atrophy / Hypertrophy Complex of the liver after biliary ligation in the rabbit	3.11	진단방사선과 제2 판독실
생물학	송진원	Journal Scatology in the GI bleeding	3.11	생물학
생물학	박성진	자기광 주입으로 유발된 폐지혈제인자의 전신적 다중 활성 소견 및 발효의 연관성 기호에서의 다중 활성	3.11	생물학
한의학	한현일	일출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한의학
간호학	김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간호학
이비인후과	김선진	근조직에 의한 외측 근육근에 일과적 근육의 유해성에 대한 실험연구	3.11	이비인후과
미생물학	최정숙	인간 대장균 12가 미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실험연구	3.11	미생물학
기생충학	최정숙	인간 대장균 12가 미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실험연구	3.11	기생충학
병 리 학	김정숙	Genetic Characterization of the P16(CDKN2/MTS) gene in human stomach tissues	3.11	병리학
임상병리	이우진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임상병리
내 과	김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내과
화 과	김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화과
소 과	김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소과
경제학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경제학
컴퓨터	김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컴퓨터
유전공학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유전공학
조 경 조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조경조
화학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화학
토목공학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토목공학
원 자 력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원자력

학과	이름	논문제목	일시	장소
진 단 이	이희철	Experimental Atrophy / Hypertrophy Complex of the liver after biliary ligation in the rabbit	3.11	진단방사선과 제2 판독실
생물학	송진원	Journal Scatology in the GI bleeding	3.11	생물학
생물학	박성진	자기광 주입으로 유발된 폐지혈제인자의 전신적 다중 활성 소견 및 발효의 연관성 기호에서의 다중 활성	3.11	생물학
한의학	한현일	일출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한의학
간호학	김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간호학
이비인후과	김선진	근조직에 의한 외측 근육근에 일과적 근육의 유해성에 대한 실험연구	3.11	이비인후과
미생물학	최정숙	인간 대장균 12가 미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실험연구	3.11	미생물학
기생충학	최정숙	인간 대장균 12가 미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실험연구	3.11	기생충학
병 리 학	김정숙	Genetic Characterization of the P16(CDKN2/MTS) gene in human stomach tissues	3.11	병리학
임상병리	이우진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임상병리
내 과	김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내과
화 과	김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화과
소 과	김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소과
경제학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경제학
컴퓨터	김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컴퓨터
유전공학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유전공학
조 경 조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조경조
화학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화학
토목공학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토목공학
원 자 력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원자력

학과	이름	논문제목	일시	장소
경제학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경제학
컴퓨터	김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컴퓨터
유전공학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유전공학
조 경 조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조경조
화학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화학
토목공학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토목공학
원 자 력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원자력

학과	이름	논문제목	일시	장소
경제학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경제학
컴퓨터	김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컴퓨터
유전공학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유전공학
조 경 조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조경조
화학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화학
토목공학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토목공학
원 자 력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원자력

학과	이름	논문제목	일시	장소
경제학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경제학
컴퓨터	김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컴퓨터
유전공학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유전공학
조 경 조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조경조
화학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화학
토목공학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토목공학
원 자 력	최정숙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폐쇄성 및 폐쇄성 요관내에서의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에 관한 실험연구)	3.11	원자력

경희대학교
대 학 원